

#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충청북도 음성군  
- 새순지역아동센터



2019. 1

---

송\*경

---

걱정했던 것 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라 정말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었고, 그만큼 아이들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도 더 풍성하게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. 봉사를 하러 갔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러 간 것 같은 기분이었고, 내가 주려고 했던, 그리고 실제로 준 것들보다 아이들에게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, 되려 고맙기도 했다. 다리를 다친 상태로 활동에 참여해야 해서 활동적인 수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지만, 서로 배려해주는 팀원들과 이해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 정말 추운 날씨였지만 5일 동안 정말 몰입해서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인지, 그 어느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다.

---

손\*희

---

이화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. 각자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자기주도적 수행력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고, 계획된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춰 시간과 내용을 수정하며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었다. 기관에서 봉사단원들과 협동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잘 마무리되었을 때는 매우 뿌듯했다.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아이들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다.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나도 덩달아 즐거워,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. 아이들, 기관 선생님들, 봉사단원들과 함께 정답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어 좋았다.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, 좋은 인연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.

---

정\*림

---

이화봉사단을 통해 팀원들이 같이 준비하며 많이 친해졌는데 이 점이 수업에도 잘 적용되어 보다 더 아이들에게 좋은 봉사시간이 되었다. 또한 아이들을 만나 우리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과 기획단 프로그램을 지도하였는데 그 과정이 아이들과 우리들, 서로 재밌어하는 순간 순간이었다고 생각된다. 센터에서의 모든 과정이 배울점이 있었고 보람있던 시간들이었으며 아이들과 팀원들을 알게되고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.

---

왕\*림

---

이화봉사단을 신청했을 때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 아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주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.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나 또한 아이들에게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다.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좋았다. 아이들 한명 한명 어떤 아이인지 알아갈 수 있었다.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다.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다. 이제서야 아이들의 이름을 다외우고 많이 친해졌는데 헤어지게 되어 너무 아쉬웠다. 아이들에게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---

김\*윤

---

사전교육을 받을 때 센터의 아이들이 대체로 철없고 무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잘 대처하면서 수업을 이어나갈지 걱정이 많았다. 이전에도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, 평정심을 유지하며 수업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였다.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보다 너무 착하고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을 만나 준비해간만큼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올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.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나누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.

---

김\*윤

---

아이들의 순수함, 밝음, 사랑 등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감사했다. 또 센터장님께서 숙소와 봉사활동 진행 등과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신경써주셔서 매우 감사드렸다. 다툼이 있는 아이들과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바로 통제해주셨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센터 선생님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. 한편 기획단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. 이번 영어만화 만들기 프로그램은 만화를 만들기엔 제한적인 표현이었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많았다. 어떤 의도에서 영어 만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인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분명히 사전 교육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. 또한 세계 문화 체험하기 중 피냐타 만들기는 딱풀로는 전혀 색종이가 붙지 않았는데 준비물로 물풀이나 목공풀을 준비해달라는 특별한 말이 없어서 센터에 따로 준비해가지 못해 피냐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 프로그램 별 유의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.